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5명이 'SKY'... '학벌 카르텔' 여전

종로학원, 22개 로스쿨 1850명 분석
서울·고려·연세대 3곳서만 1024명
지방대 출신 4.8% 전북대 20명 최다
서울대 자교 합격자 비율 67% 최고

전국 로스쿨 합격자 과반수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합격자 84%는 서울 소재 대학 출신으로, 특정 대학에 사법시험 합격자가 몰리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학벌 편중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중 합격자 출신 대학을 공개하지 않은 경북대·동아대·영남대 등 3개 대학을 제외한 22곳의 합격자 1850명을 분석한 결과 83.9%가 서울권 소재 대학 출신이었다.

이 중 서울대 출신 합격자는 413명으로 전체 22.3%를 차지했고, 고려대 319명(17.2), 연세대 292명(15.8%) 등 'SKY' 출신이 전체 로스쿨 합격자의 55.4%(1024명)를 차지했다.



서울대 로스쿨 모의 법정.

/뉴스시스

나머지 합격자 중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성균관대 127명(6.9%) 경찰대 81명(4.4%) 이화여대 79명(4.3%) 한양대 67명(3.6%) 중앙대 51명(2.8%) 서강대 47명(2.5%) 경희대 41명(2.2%) 등 로스쿨 합격자 출신 대학 상위 10곳이 전체 합격자의 82%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곳 중 경찰대를 제외한 9곳이 모두 서

울권 소재 대학이었다.

이 밖에 서울시립대 27명(1.5%) 한국외대 24명(1.3%) 건국대 12명, 동국대 8명, 인하대 5명, 숭실대 4명, 성신여대 4명, 덕성여대 3명 등이 합격생을 배출했다.

지방권 소재 대학 출신 합격자는 4.8%(88명)에 그쳤다. 지방권 대학에서

는 전북대가 20명(1.1%)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 18명(1.0%) 전남대 17명(0.9%) 충남대 6명(0.3%) 제주대 4명(0.2%) 경북대 3명(0.2%) 조선대 3명(0.2%) 고려대(세종), 강원대, 국립경상대, 원광대 등 각 2명(0.1%) 순이었다.

전국 22개 로스쿨의 평균 자교 출신 비율은 20.8%였다. 로스쿨 자교 출신 합격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울대로,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중 서울 학부 졸업자가 66.7%를 차지했다. 이어 연세대(44.4%) 성균관대(34.8%) 경희대(33.3%) 서울시립대(30.9%) 고려대(29.8%) 중앙대(25.9%) 한국외대(16.7%) 이화여대(16%) 서강대(13.6%) 순이었다. 규정상 로스쿨은 같은 대학 학부(자교) 출신을 3분의 2 이상 선발하지 못하는데, 서울대는 그 비율의 최대치에 근접했다.

반면, 충북대 로스쿨은 합격 인원 74명 중 자교 합격 인원이 한 명도 없었다. 원광대는 65명 중 1명이, 아주대는 55명 중 1명이, 충남대는 110명 중 3명만이 자교 출신 합격자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

권 소재 12개 로스쿨 합격자가 평균 31.9%가 자교 출신이었던 반면, 경인권 2개 로스쿨은 2.7%, 지방권 8개 로스쿨은 6.5%만이 자교 출신으로 집계됐다"라며 "로스쿨 합격 인원이 많은 대학이나 자교 출신 합격 비율이 높은 대학 모두 서울권 상위권 대학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스쿨은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문직 분야로, 로스쿨 합격 인원이거나 자교 출신 합격비율 등이 대학 선택에서 중요한 선택 변수로 작용하면서 대학의 지역 간 편차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임 대표는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학에 상관없이 의대 등 메디컬 부분 쏠림현상이 있다면, 문과 상위권 학생들은 학과 보다는 대학 브랜드 등이 학교 선택에 중대 변수로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로스쿨 선발 과정에서 서류, 면접 점수 비중이 높은 것 또한 로스쿨 합격자가 상위권 대학에 집중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학부모마음상담' 확대... 대면상담 신설

서울시교육청, DB·사례집도 마련
내달부터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부모의 다양한 상담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학부모마음상담' 프로그램을 새롭게 확대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서울학부모마음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고충 상담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해 올해 주제별 맞춤형 학부모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상담소 ▲자녀 생애 주기와 학교 학사 운영 고려한 상담 시스템 구축 ▲학부모지원센터의 축적 상담 사례 체계화 및 상담 데이터베이스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스 제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학부모 마음 상담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해 전문상담사를 확충하고 내밀한 고충 해소를 위한 대면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한 단절·중단없는 상담 체계를 구

축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상담 사례를 모은 카드뉴스도 제작하고 상담사 이야기 등을 모아 e-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서울학부모마음상담'은 14일부터 시작하며, 5월부터는 매월 1~3일 서울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https://parents.se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상담소는 5월부터 대면상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부모의 다양한 상담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앞으로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형성 및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저서, 세종도서 추천 목록에 올라

세계 한국학 동향·발전전략 담아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국제관계연구소 산하 K학술확산연구센터가 발간한 연구저서 '글로벌 한국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 정체성의 정치와 공공외교의 한국학'이 2024년 세종도서에서 학술 부문 추천 도서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세종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출판 진흥 사업이다. 매년 학술·문학·교양 등 각 분야의 우수 도서를 선정해 전국 공공 및 대학 도서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10개 분야에서 363종의 도서가 최종 선정됐다.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산하 K학술확산연구센터는 한류를 계기로 높아진 외국인과의 재외동포의 관심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한국 이해 확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21년 7월부터 사회과학기반의 'K학술확산연구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저서는 이 같은 연구 활동을 집대성한 것으로 글로벌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성과물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저서의 1부는 한국학의 발전 흐름을 개괄하고, 글로벌 한국학으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일본, 유럽, 영미권 등에서의 한국학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3부에서는 아시아·대양주·유라시아 등 신흥지역에서의 한국학 전개 양상과 고려인 대상 한국어 교육 사례를 통해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제시했다. 부록에는 사회과학 분야 한국학의 전 세계적 현황을 통계로 정리해 학술적 활용도를 높였다.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최근 한국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번 저서는 한국학의 발전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별 연구 동향을 조망함으로써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교직원도 사이버대 학위 취득 가능

경기도교육청-원광디지털대

사이버대 5곳과 위탁교육 협약 체결
직무역량 강화·정년 후 대비까지 지원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가 경기도교육청과 1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컨퍼런스홀에서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광디지털대를 포함한 주요 사이버대학 5개교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소속 임직원의 자기 계발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청 산하 기관

재직자는 온라인 기반 교육으로 정규 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입학 시 산업체 위탁교육 장학 혜택도 적용받는다.

이에 원광디지털대는 학사과정 입학 시 수업료의 50%, 석·박사과정 입학 시 3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온라인 기반의 교육과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직장 생활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교육 형태는 정년 후 인성 2막을 준비하거나, 현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교직원,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 실무 종사자들의 꾸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

체 위탁교육 대상자는 재직 증빙이 가능할 경우, 해당 기관과 대학 간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김윤철 총장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약 20만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원광디지털대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직원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그 의미 있는 협력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학년도 원광디지털대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현진 기자

'걷기 좋은 봄' 경기옛길 벚꽃명소 13곳 선정

경기도-경기문화재단

초행자도 앱으로 손쉽게 탐방 가능

경기도와 경기옛길센터는 봄을 맞아 도내 대표 역사문화 탐방로인 '경기옛길' 구간 가운데 벚꽃명소 13곳을 선정했다. 해당 명소는 따뜻한 봄날 도민들의 일상에 여유와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13곳은 경기옛길 전체 구간 중 벚꽃이 특히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명소로 삼남길 3곳, 의주길 1곳, 영남길

1곳, 평해길 2곳, 경흥길 2곳, 강화길 1곳, 봉화길 2곳이 포함됐다. 이들 명소가 위치한 경기옛길 구간은 벚꽃 구경은 물론, 날씨가 따뜻해진 봄철 걷기에도 적합하다.

처음 걷는 도민이라도 '경기옛길'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구간을 찾을 수 있다. 앱을 통해 옛길 지도와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주요 지점이나 문화유산에 대한 음성해설도 들을 수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